

불꺼진 상가들... 광주 핫플 ‘시리단길’ 추락

시너지타워 건물 곳곳 공실
텅 빈 상가 임대 현수막 ‘즐비’
경기침체에 점심·저녁 한산
높은 관리비로 임차인 이탈



전일보
@jnlibo
QR코드를 찍으면
전일보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장사를 안 하는 가게나 공실이 많다 보니 이곳이 망한 줄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경기 불황의 여파가 광주광역시에서 새롭게 각광 받고 있는 신흥 상업지역까지 퍼졌다. 젊은이들의 핫 플레이스로 주목받던지 채 얼마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주요 건물들에서 빈 자리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18일 광주 광산구 첨단1지구 ‘더 시너지 첨단’. 이곳은 첨단지역의 중심 건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건물을 가득 채워야 할 가게들 대신 ‘임대’, ‘여기서 장사하세요’ 등의 문구가 담긴 전단지과 현수막들이 광장 입구부터 방문객들을 맞이했다. 건물 내부에는 상자와 플라스틱 의자

등이 어지럽게 놓여 있어 혼란스러운 인상을 줬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가게들조차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다. 1층뿐 아니라 2·3층 상가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가게 홍보에 쓰여야 할 배너들이 구석에 방치돼 있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더 시너지 첨단’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위치한 ‘보이지 첨단’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오전 11시께라면 점심 장사 준비로 분주할 시간이지만, 건물 전체에서 문을 연 음식점은 두세 곳에 불과했다.

심지어 포털사이트에 표기된 영업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문을 열지 않은 가게들도 많았고, 창문엔 국제청 등에서 보낸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그대로 붙어 있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줄 서서 기다리는 ‘오픈런’으로 유명했던 이상권은, 점심시간이 가까워져도 발길이 드문드문 이어질 뿐이었다. 건물 주변을 지나쳐 걷는 시민들도 대부분 상권 방문객이 아닌 인근 직장인이나 주민들로 보였다.

이곳은 얼마전까지 시너지타워와 경리단길을 합쳐 ‘시리단길’이라고 불리며 불야성을 이루던 광주 MZ세대의 핫플레이스였다. 그러나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상권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첨단 상권을 견인해온 부동산 개발회사 시너지타워가 최근 총장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해온 ‘몽키터미널’ (옛 와이즈파크) 개발이 중단되면서, 부도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다.

지역 상권을 이끌었던 핵심 장소인 만큼,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은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시너지타워 한 건물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A씨는 “잘 나갔을 땐 너도나도 이곳에 들어오고 싶어 했다. 그때 사람이 물밀듯

이 몰려 비싼 관리비나 월세도 감당할 수 있었다”며 “요즘은 손님 발길이 끊겨 나가는 임차인들이 많다”고 전했다.

음식점을 운영 중인 심소영(58)씨도 높은 관리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장사가 잘될 때를 기준으로 관리비가 책정돼 지금도 꽤 높은 편”이라며 “시너지타워 상가뿐 아니라 첨단 상권 전체가 살아나려면 공실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친구들과 ‘시리단길’을 자주 찾았던 첨단1지구 토박이 김지민(24)씨는 “대학가보다 이곳이 젊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코로나 때도 장사가 잘 되는 가게들이 있었고, 젊은 세대들이 즐겨 찾으며 주변 상권도 살아 있었다”며 “요즘은 가게 문이 몇 달째 닫혀 있는 곳이 많고, 저녁에 와도 조용하다. 광주의 상징적 공간이 쇠퇴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저녁시간에도 점심 때와 다르지 않았다. 평일임을 감안하더라도 시너지타워 건물들은 지나치게 한산했다.

손님이 없어 영업시간 종료 전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았다. 장사를 하는 것보다 월세만 내는 것이 이득이라 여긴 자영업자들은 매장 문을 한 두달째 열지 않고 있기도 하다.

이날 가장 늦게까지 장사를 이어간 자영업자 B씨는 “‘시리단길’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땐 손님이 정말 많았는데, 지금은 주말이어도 매출이 예전의 절반 수준”이라며 “시너지타워 부도 위기설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불안해했다. 손님도 줄었는데 계약 만료 때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 걱정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몽키터미널 개발이 중단되면서 시너지타워 직원이 와서 임대차 계약을 바꾸자고 했다. 예전엔 각 호실의 주인과 임차인 사이에 시너지타워가 중개인으로 들어가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제는 시너지타워 없이 직접 계약을 맺게 됐다. 부도 상황에서 보증금 보호를 위한 조치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소영·이정준 기자

전남교육청 수능 분석 오류 논란 확산

“하위등급 감소” 수치 오류
전교조 “정책 신뢰 훼손” 비판
교육청 “성급한 해석 인정” 해명

전라남도교육청이 공개한 2025학년도 수능 분석 결과에 오류가 드러나며 통계 왜곡 논란과 함께 교육 정책 신뢰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교육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18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수능성적으로 보는 전남교육 토론회’에서 도교육청의 수능 분석 보도자료에 대해 “공식 수치 왜곡이며 선거용 홍보자료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도교육청이 2021학년도 수능 데이터를 활용해 2025학년도 성적을 유리하게 비교했다며, 특히 국어와 수학의 하위 등급 비율을 실제보다 부풀려 하위권 감소 효과를 부각시킨 점을 문제 삼았다. 실제 2021학년도 국어 7~9등급 비율

은 7.1%였으나, 교육청은 이를 14.5%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독서·인문교육의 성과라고 주장한 분석도 논란이 됐다. 전교조는 “2023년에 시작된 정책이 2025 수능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며, 전국 평균보다 낮은 표준점수를 언급하지 않는 등 통계 활용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국어 영역의 등급 분포 수치 입력에 오류가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해석은 성급한 판단이었다”고 오류를 인정했다. 더불어 “정책적 방향인 기초학력 향상과 독서 중심 교육의 효과를 수능 결과로 일반화한 점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자료 제공의 불가피성을 이해해 달라”며 “향후 외부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분석 체계를 마련해 정책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높ی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예술이 자산이 되는 시대, GIST서 해답 찾는다

미술품 감상·투자 통찰 공유
김윤섭 평론가 특별강연 마련
선착순 50명 사전 신청 필수



임교수, 국립현대미술관 평가위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이사, 이근희 컬렉션 감정위원 등을 역임한 국내 대표 미술 평론가다.

예술의 가치와 자산으로서의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는 특별강연이 GIST에서 열린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오는 20일 오후 4시 오톡관 다목적홀에서 미술평론가 김윤섭 이사장을 초청해 ‘미술품의 감상과 투자’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예술을 감상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투자와 자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시민, 예술 애호가, 미술시장에 관심 있는 투자자, 예술경영 종사자 등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강연자 김 이사장은 예술나눔 공익재단 ‘아이프칠드런’ 이사장으로, 숙명여대 겸

그는 이번 강연에서 “미술은 감상의 대상이자, 시대와 시장을 읽는 자산”이라는 시각으로, 예술과 자산 가치의 접점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풀어낼 예정이다.

아이프칠드런은 미술을 중심으로 한 예술 자산을 활용해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예술교육 및 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비영리 공익재단이다.

강연 참석은 사전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선착순 50명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오톡아트홀(062-715-2622)로 문의하면 된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10개 광주시민단체로 구성된 2025차별철폐 광주대행진 추진단이 18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개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광주 시민사회 단체 “모든 차별에 반대”

18일 오전 시청서 기자회견 열어

광주 지역 시민단체와 정당 등이 참여한 ‘2025 차별철폐 광주대행진’이 차별 없는 사회와 평등한 권리를 요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지역 10개 단체가 참여한 ‘2025 차별 철폐 광주 대행진’은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대행진에 참여한 단체들은 비정규직·불안정 노동 철폐, 노조법 2·3조 개정, 성평등 정책 실현, 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이주민 차별 반대, 장애인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어 “다름을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배제와 혐오 그리고 차별에 저항할 것이며, 모든 노동자에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나아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단체는 지난 4월 열린 광주퀴어문화축제를 언급하고 “존재를 숨겨야 했던 성소수자들이 이제는 광장으로 나서고 있다”라며 성소수자들의 인권 보장을 촉구했다.

끝으로 “우리는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연대의 힘으로 평등의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정준 기자

금호타이어 노조 “광주 1공장 재가동하라”

“사측 고용보장 입장 밝혀야”
산업은행 건설비용 마련 협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가 한 달째 강제 휴업에 들어가자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을 위해 사측에 1공장 재가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등 금호타이어 5개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

주공장 연구동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 열었다.

이날 노조는 광주공장 빛그린산단 이전 확정, 정상화 로드맵을 위한 노사간 논의, 노동자 고용 안전, 산업은행 건설비용 마련 협조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광주공장 화재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사측은 뚜렷한 복구 계획과 고용 보장에 관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주주인 더블스타와 더불어

2대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신공장 건설을 위한 대출 등 비용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금호타이어를 중국 자본인 더블스타에 매각한 산업은행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화재사건을 한 기업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일자리와 삶, 지역 경제가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19일부터 국회와 정부를 향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상화를 위한 1인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준 기자